태고종 '종단 대법회' 연다

10월말 서울서…전승관 설립 계기로 '종도 화합'

30년만에 전국규모 법회, 종무원장 회의서 결의

태고종 전국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의 대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태고종단 대법회'가 30여년만에 열린다. 또한 18개 지방교구 종무원이 주축이 된 전국규모의 신도회가 7월중으로 조직된다.

태고종 총무원 및 전국 각 시도 종무원장 스님들은 4월 10일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전국종무원장회의를 열고 올 10월말에 정대불사 및 보살계 형식의 종단 대법회를 개최할 것과 초파일 이후 전국 신도회를 조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불교역사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 준공을 앞두고 열리게 될 대법회의 장소와 정확한 시기는 총무원에 일임해 초파일 이후 부장급 이상 회의를 거쳐 결정짓기로 했다.

총무원 부원장 자월 스님은 "1975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법회는 태고종이 거듭나는 계기가 된 모임이었다"며 "전승관이 설립되는 올해 대법회를 통해 종도들이 재발심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시기"라고 법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주요안건으로 채택된 전국신도회 조직과 관련, 총무원 기획부장 백운 스님은 "전승관 완공에 앞서 종단의 새 모습을 만드는 차원에서 전국 규모의 실질적인 신도회 조직이 필요하다"며 "초파일 이후 전국을 순방하며 신도회 조직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지침을 각 지역 현실에 맞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운 스님은 또 "조직 구성은 과거같이 중앙에서 하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역 현실을 감안한 상향식이 될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승관 건립 불사와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현재 전승관 공사는 전체 공정의 37%가 진행돼, 지하 3개 층의 골조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이며, 7월 이전에 지상 3층까지 기본골조를 완공해 올 11월 완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종단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교구별 종단 소속 스님(권속 포함) 가운데 석박사, 교직경험자, 사회봉사기관 근무 경력자 등의 명단을 종단 차원에서 파악할 것과, 종단 내 사회복지사업 현황을 취합할 것을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심인당 중심으로 봉축 준비

진각종, 지역 포교활성화 새전기 마련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4월 30일)를 앞두고 진각종 신교도들의 손길이 바쁘다. 올해부터 진각종은 중앙 통리원 봉축준비 체제를 벗어나 각 심인당이 포교 활성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심인당 중심체제로 전환했다. 진각종 통리원은 올해를 심인당별 봉축준비 시범운영의 해로 정하고 서울 교구내 심인당에 축제준비 전권을 부여했다. 진각종은 올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내년부터는 전국 심인당이 자율적으로 봉축행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원심인당(서울 강남구 역삼동)은 신교도들을 주축으로 3월말부터 호박, 사과, 버섯, 딸기 등의 과일전통등(燈) 제작에 분주하다. 신교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전통등은 4월 30일 서울 연등축제 때 거리행진에서 선보이고 심인당에 전시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통등 제작은 3년 동안 신교도들이 강습회를 통해 배운 실력을 맘껏 발휘하는 자리여서 참가자들이 "봉축준비를 하며 신심을 배가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상심인당(서울 구로구 구로본동)도 연등축제 소품으로 사용되는 연희단 복식을 신교도들이 직접 제작하고 있다. 실상심인당의 연희단 복식제작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수행복 제작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교도 단체인 총금강회 서울지부도 군무단을 조직하는 한편 연등축제에 적극 참여키로 했으며, 서울청년회와 자성학교 연합회는 가장행렬과 어린이 연희단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비로자나청소년협회와 진각복지재단 등 종단 산하 법인 종사자들도 연희단을 구성했으며 서울교구를 비롯해 지방의 각 심인당에서도 거리행진에 사용될 마니륜등(단체등)을 자체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 금명 스님 추대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은 4월 8일 운천사에서 주지총회를 열고 나주 태평사 주지 금명 스님(사진)을 제13종무원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광주 · 전남지역 주지 스님들은 종무원장 선거에 앞서 "신임 종무원장은 투표가 아닌 덕망높은 스님을 추대하자"고 결의하고 금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금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이 하나되어 종단은 물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신임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장 금명 스님은 1940년 전남 화순 生, 1953년 백양사에서 장조 스님 은사로 출가했다. 1975년 태고종 나주분원장, 1998년 전남 총무원장 역임. 1966년 나주 태평사를 창건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준엽 기자

무량종 창종 7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무량종은 4월 9일 종단 총본사인 하동 칠보정사에서 총무원장 혜안, 종회의장 보경, 교육원장 보산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총무원장 혜안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항상 화합하는 무량종이 되자"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군포교 황금시대 주역이 되자!

군법사 되는길은?

군승사관 후보생…東大 등 재학생
군승예비요원…대졸 사미 이상
좌우명 "포교하다 죽는것이 행복"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은 4월 4일부터 7일까지 육군훈련소 연무사에서 올해 입대 예정인 군승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50년 예비 군승 입대 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입대 전 교육은 군승의 자세, 군종 교구 업무 및 현황, 주지 법사의 역할, 군과 포교, 군승 리더십, 군종교육 활동, 육해공군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동참한 예비 군승은 군승사관후보생 7명과 군승예비요원 11명 등 모두 18명. 이들은 철저한 예비 군승 선발 과정을 거쳐 그동안 승려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조계종 기초선원 등에서 수행정진해 왔다.

어떻게 하면 군법사가 될 수 있을까?

군법사가 되는 길은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예비요원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군승사관후보생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한 남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매년 7월 시험을 통해 공개 선발된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 국민윤리, 일반사회 등 5과목. 정원은 전역하는 군법사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선발 인원이 부족할 경우 2~3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선발을 하게 된다.

선발된 군승사관후보생은 매주 자체 법회를 보고 한달에 한번씩 현역 법사의 현장 지도를 받는다. 더불어 1년에 2번 군종특별교구에서 주관하는 동하계 교육에 참석해 전통의식 실수, 상담기법, 리더쉽 교육 등을 배운다.

또한 졸업후에도 6개월간의 행자 교육을 거쳐야 하며 1년 이상 조계종 기초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한 이후 현역 군법사로 임관하게 된다.

이에 반해 군승예비요원은 이미 승려로서의 자격을 갖춘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4년재 대학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만 35세 미만의 남자로 사미계 이상을 수지해야만 지원 가능하다. 매년 11월 가치관, 의식 실수, 불교학 등 3과목의 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이미 승려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기에 그 다음연도에 바로 임관된다.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예비요원 공히 금치산자 등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선발되며 대학 졸업과 계를 받은 기간 등을 고려해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된다.

예비 군목사의 경우도 예비 군승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지정한 기독교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군종장교사관후보생을 선발한다. 예비 군신부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카톨릭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신부 가운데 군종예비요원만 선발한다.

군승사관 후보생과 군승예비요원들의 입대전 교육모습.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역 군종장교는 개신교 273명, 불교 141명, 천주교 79명 등 493명. 이들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주관하고 장병들의 정신 교육, 상담 등 심리전을 대비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전창응 사무국장은 "군법사의 좌우명이 '포교하다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이 높고 불교의 최첨단 포교사로서 항상 절차탁마하는 자세로 군 포교에 임하고 있다"며 "포교에 원력을 세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불자들이 많이 지원해 군포교의 황금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